

“야구로는 성공 못했지만 이웃 돕는 지금 행복해”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는 김성계 전 선수.

야구선수서 봉사단원 2막 여는 김성계 전 KIA 선수

2004년 입단 후 NC 이적...건강 악화로 선수 생활 마감 아버지 일 배우며 봉사활동 “야구 꿈나무 키워보고 싶다”

“야구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인생 제 2막에서는 FA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 10년간 KIA타이거즈의 야구선수로서 활동했던 김성계(38)는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과 봉사로 인생 제 2막을 살아가고 있다.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4년 KIA 타이거즈에 입단한 그는 2016년, 계약 만료로 NC 다이노스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다.

김씨의 야구 인생은 “야구 잘할 것 같으니 한번 해 보라”했던 작은 삼촌의 권유에서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무턱대고 시작한 야구는 KIA타이거즈 입단까지 이어졌고 본격적인 선수 생활에 돌입했다.

하지만 건강 악화는 김씨의 선수 생활에 제동을 걸었다.

“애초 심장부정맥을 갖고 있었어요. 아침에 훈련 가려고 방 문을 여는데 호흡이 어렵게 느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바로 119를 불렀고 병원에 가서 안정을 취했죠. 구단에 말씀을 드렸고 선수로서

계속 뛰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계약 만료 이후 즉시 짐을 싸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을 해 온 야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약 2년간의 슬럼프를 겪으며 막막한 감정과 캄캄한 미래와 씨워야 했다.

현재 김씨는 40년 경력의 아버지를 따라 누수 관련 일을 이어오고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는 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다. 3D홀로그래프 관련 일도 하며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말도 못하고 속을 알 수 없는 공을 상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더 어려웠다.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영영 운적도 있었다”며 자영업의 고충을 설명했다.

야구를 그만뒀지만 언제나 김씨의 가슴 한 켠에는 야구에 대한 갈증이 여전히 있다.

“야구를 시작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KIA에 입단했던 때,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응원해줬던 팬들에 대한 기억도 잊지 않고 있다. 선수였던 당시에는 200여명의 팬들이 가입해 있었지만 현재는 50명밖에 남지 않은 팬카페도, 가끔씩 인스타그램에 달아주는 팬들의 댓글 하나하나도 모두 소중하다.

“야구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인생 제 2막에서는 FA를 바라보고 있다”고 털어놓은 웃음을 지어보이는 그는 팬들로 인해 항상 행복하게 야구하고 웃을 수 있었던 선수로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시작한 김씨의 인생은 ‘봉사’로서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겨울이 되면 아직도 연탄을 때며 추위와 맞서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카카오톡 방 ‘햇빛방’에서 시작된 햇빛클럽 회원 5명과 연탄 봉사에 나서고 있다. 봉사 경험은 전무하지만 앞으로도 애육원 등을 다니며 꾸준히 봉사를 할 계획이다.

선수 경력을 살려 광주의 야구 꿈나무들에게 교육 봉사를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사회인 야구, 햇빛클럽, 지역의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 미력하지만 자신의 노하우를 전달할 생각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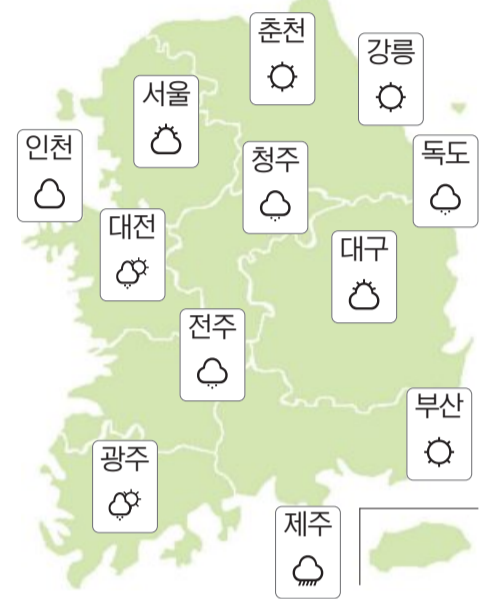
해돋이	07:32	달뜨기	22:41
해질	17:21	달짐	11:56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오전까지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 1~5cm.

광주	눈온뒤غم	-3/2	보성	흐림	-5/1
목포	눈온뒤غم	-1/3	순천	흐림	-4/2
여수	흐림	-2/3	영광	눈	-4/1
나주	눈온뒤غم	-4/3	진도	눈온뒤غم	-1/4
완도	흐림	-1/4	전주	눈	-5/0
구례	눈온뒤غم	-5/1	군산	눈	-6/0
강진	흐림	-2/3	남원	눈	-7/-1
해남	눈온뒤غم	-2/3	홍산도	흐림	0/4
장성	눈온뒤غم	-6/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2.0~3.0	1.5~3.0
	면바다(북)	2.0~5.0	2.0~4.0
	면바다(남)	2.0~4.0	2.0~4.0
남해 서부	앞바다	1.5~2.5	1.0~2.0
	면바다(서)	2.0~4.0	2.0~4.0
	면바다(동)	2.0~3.5	1.5~3.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35	05:11
		23:30	17:59
여수		06:07	12:47
		18:56	- : -

◇ 생활지수

감기	천식	미세먼지
경고	위험	한대 나쁨

◇ 주간 날씨

15(목)	16(금)	17(토)
-3/7	-2/2	-3/3
18(일)	19(월)	20(화)
-6/1	-5/3	-3/8

전남대학교병원 환자 쾌유 기원 트리 점등식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정용연)·빛고을전남대병원(병원장 박용욱)이 전남대병원 1동 앞에서 환자 쾌유를 기원하는 ‘사랑과 희망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혔다.

<전남대병원 제공>

충장동 자원봉사캠프 어르신 부부 인생 사진 촬영



광주시 동구 충장동 자원봉사캠프는 최근 동구 어르신 부부 10쌍을 대상으로 ‘인생사 촬영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 동구 제공>

김경중 조선대병원장, 광주 소화자매원 후원

조선대병원은 김경중 병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개인 비용을 들여 마련한 쌀과 성금을 12일 광주 소화자매원에 전달했다.

<사진>

조선대병원은 쌀 이외에도 비누와 소금, 물티슈 등 생활용품도 함께 기부했다. 이날 기부식에는 김경중 병원장과 최지은 대외협력실장, 박민수 총무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중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만 정성이라도 보태 따뜻한 지역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



대한검도회, 문인 북구청장에 공로패

광주시검도회는 지난 12일 문인(가운데) 북구청장에게 대한검도회 공로패를 전달했다.

대한검도회는 최근 열린 대한검도회 표창식 및 검도인의 밤 행사에서 검도발전에 기여한 문인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문 청장은 북구청 검도팀을 운영하는 등 검도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공헌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구청 검도팀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 우승을 차지해 광주시가 종합 2위에 오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선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 및 각 지회(순천, 목포, 해남) 지정투표소에서 제57대 임원(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2022년도 정기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를 통해 제57대 신임 회장으로 장정희 변호사(68년생, 연수원 28기·사진), 감사에 최정익(68년생, 법무 12기), 고운오 변호사(71년생, 연수원 37기)가 당선됐다. 장정희 회장 당선인은 내년 1월 19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76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2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장정희 회장 당선인은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 옹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 ▲유영수(전 한국전력 해남지점)-이명희씨 아들 준영군, 정종세-김미영씨 딸 혜선양=17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더컨벤션 1층 그랜드볼룸
- ▲강창섭-김형신씨 아들 정현군, 김보곤(DK 회장)-차상례씨 딸 남희양=17일 오후 12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요청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

- 지장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콜센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양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

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